제6장

#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 1. 머리말

본 내용은 2020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 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양명학〉 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3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인물별(주제별) 분류에 따른 해당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을 했다. 편의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정제두(강화학파) 관련 논문이고, 둘째는 양명학과 성리학 관련 논문이고, 셋째는 기타 논문이다.

## 2. 인물별(주제별) 분류

### 1) 정제두(강화학파) 관련 논문(6편)

| 번호 | 저자명 | 논문 제목 | 발행기관명 | 학술지명 |
|---|---|---|---|---|
| 1 | 서강휘 | 霞谷의 「理, 그리고 陽明 正統派의 本體 | 한국동양철학회 | 동양철학 |
| 2 | 배병대 |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 | 한국양명학회 | 양명학 |
| 3 | 박현정 | 장서각 소장 정제두 초집 『稽山先生學錄』 初探 | 한국양명학회 | 양명학 |
| 4 | 박현정 | 학파적 시각에서 본 하곡학의 성격과 특징 | 한국양명학회 | 양명학 |
| 5 | 진성수 | 담원 정인보의 자녀교육 | 한국양명학회 | 양명학 |
| 6 | 박성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곡사상 | 한국양명학회 | 양명학 |

2020년도 한국 양명학 관련 논문 13편중에서 정제두(강화학파) 논문이 6편이다. 19년도 전체 18편 중에서 8편과 비교하면 다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정제두(강화학파) 관련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한국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학파의 위상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서강휘의 「霞谷의 真理, 그리고 陽明 正統派의 本體」는 霞谷 鄭齊斗(1649-1739)의 주요 개념 가운데 진리와 생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제두가 지적했던 양명학의 난점, 즉 임정종욕(任情從欲)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서강휘는 우선 생리와 진리 도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생리와 진리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접근법은 한국 학계에서 많이 보편화된 방식이다. 이 방식의 대중화는 김교빈의 박사논문을 꼽을 수 있다.

서강휘는 이렇게 정리한다. “그는 주자학의 이념적인 理를 거부하고 生理라는 개념을 내세워 理의 생동성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眞理를

택하라'라는 주장을 통해 생리가 정감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태주학파와 귀적학파에 대항하였던 양명 정통파의 사유 방식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어서 서강휘는 중국 양명후학 전공자답게 한국유학 전공자들이 자세히 논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바로 양명후학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내용이다. "양명 정통파의 대표적 인물들인 鄒守益(1491-1562, 號는 東廓), 歐陽德(1496-1554, 號는 南野), 陳九川(1494-1562,號는 明水)은 당시 왕용계와의 교류를 통해 공부에 있어서 본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공부를 통해 본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인물들인데 이를 통해 귀적계열이나 태주학의 문제를 지적한다. 귀적계열은 본체를 실체로 오인하여 공부의 생동성을 방기했다. 하곡의 입장에서 보자면 귀적 계열은 진리의 본체적 성격에 집중하여 생리와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태주학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여 공부의 중요성을 외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하곡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리만을 강조하여 진리의 본체성을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곡에게서의 생리는 진리와 단절될 수 없는 것이며 진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진리는 생리를 통해 활동성을 보장받는다. 하곡의 이러한 견해는 양명 정통파의 공부와 본체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강휘의 논문은 주요 논문 분석에서 다시 다루겠다.

정제두는 자신의 양명학적 입장을 경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개했다. 이 점은 한국 유학 연구자들이 중국 양명학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점이다. 왕양명이 육상산이 맹자학을 이었다고 평했듯이 모종삼은 양명심학이 맹자학의 적통이라고 주장한다. 심학 계열

에서 맹자는 영감의 원천으로 늘 사용되었다.

배병대의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한 연구다. 배병대는 이렇게 정리한다. "하곡은 「맹자」 전체가 양명의 학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양명학의 핵심 경전인 「맹자」 중에서 〈호연장〉 해석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 〈호연장〉은 비교적 간결하지만, 철학적 함의가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호연장〉은 「맹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주석가들의 논쟁이 있었다. 또한 맹자가 〈호연장〉에서 제시한 '집의'와 '양기'의 수양 방법은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내재적, 본체론적 수양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곡의 〈호연장〉 해석을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파악한다면, 철학적인 함의뿐만 아니라, 하곡의 학문이 지닌 특성까지 드러날 것이다."

박현정은 북경대학에서 양명학을 연구하고 귀국한 후에 중국 양명학을 연구하는 한편 한국 양명학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매년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 「장서각 소장 정제두 초집 『稽山先生學錄』 初探」, 「학파적 시각에서 본 하곡학의 성격과 특징」을 2020년도에 발표했다. 양명학은 경전의 묵기가 아니라 자득을 중시한다. 이런 영향으로 양명학 연구자 또한 문헌학적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문헌 고찰을 시도한 「장서각 소장 정제두 초집 『稽山先生學錄』 初探」은 긍정적이다. 박현정은 본 논문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계산선생학록』의 편차와 구성 및 내용 전반에 대한 기초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본 문헌에서의 왕수인 원문 발췌 부분의 철학적 특성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통해 정제두의 양명학 수용 초기의 양상을 짚어본다. 정제두 문헌으로 최근 새로이 규명된 정제두의 초집은 『전

습록(傳習錄)』을 비롯한 왕수인의 언설을 전문(全文)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에 입각하여 선별하여 발췌하여 필사했다는 점에서 정제두 양명학의 이해를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하곡집』에 온전히 의지해오다시피한 정제두 양명학 연구의 문헌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박현정의 「학파적 시각에서 본 하곡학의 성격과 특징」은 주요 논문 분석에서 다루겠다.

진성수는 교육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담원 정인보의 자녀교육」 역시 동일한 궤적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강화학파의 학맥을 계승하여 지행합일을 강조한 담원은 그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이 논문은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측면에서 담원이 어떤 가족경험을 통해 자녀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한말을 대표하는 사상가나 국학자가 아닌 한 사람의 家長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담원의 새로운 모습을 탐색하였다. 담원의 자녀교육은 理性的으로 주입되는 특정한 개념과 문장이 아니라 평소의 언행과 소신, 가치관과 인생관에 의한 感性的경험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향한 지시와 훈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은 지시와 훈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시와 훈계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거나 깨닫게는 할 수있지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감동과 여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담원의 자녀교육은 五感을 통해 소통되고 가족서사를 통해 기록되는 감각과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박성호는 현대적 화법으로 전통 사상을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에 잘 드러나며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곡사상」 역시 이전의 접근법에 충실하다. 다만 "본 논문은 하곡사상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과제를 '타율(他律)에서 자율(自律)로의 전환'과 '에고(ego)에서 에코(eco)로의 전환'으로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실마리를 하곡사상 중 '생리(生理)'와 '감통(感通)'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라는 논자의 선언이 오늘날의 이야기를 꺼낸 이상 이 논의의 현실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자못 주장은 성대하지만 실제적인 방안으로 연결되지는 다소 의문이다.

2) 양명학과 성리학 관련 논문(6편)

| 번호 | 저자명 | 논문 제목 | 발행기관명 | 학술지명 |
|---|---|---|---|---|
| 1 | 김형찬 | 퇴계의 양명학 비판과 조선유학의 성립 | 퇴계학연구원 | 퇴계학보 |
| 2 | 이해임 | 최명길(崔鳴吉)과 조익(趙翼)의 경전 해석 경향과 그 의의: 『사문록』, 「맹자기의(孟子記疑)」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철학탐구 |
| 3 | 전수연, 김민재, 김용재 |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4): 박세채의 「왕양명학변」을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유학연구 |
| 4 | 김희영, 김민재, 김용재 |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3) | 한국양명학회 | 양명학 |
| 5 | 황인옥 |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 『중용』 수장을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유학연구 |
| 6 | 박정심 | 근대 동아시아유학 맥락에서 박은식의 대동사상 읽기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유학연구 |

퇴계학과 양명심학과의 연계성은 한 세기 전에 이도설(理到說)에 기반하여 제기된 적이 있다. 김형찬의 「퇴계의 양명학 비판과 조선유학의 성립」은 이와 같은 기존 한국 학계의 학술 연구 성과를 배경에 깔고서 퇴계학이 양명심학을 비판하고 퇴계심학이라는 한국 성리학의 특징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설명한다.

김형찬의 의견이다.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珥가 직접 참여했던 16세기 '四端七情論爭'은 조선의 학자들이 理氣心性論 관련 논의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는 조선유학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 그런데 퇴계와 율곡, 그리고 이후 조선유학자들이 理氣心性論 논의에 집중하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건국 이래로 그들이 추구해 온 주자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그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책 모색이라는,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의 과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주자학을 비판하며 성장한 양명학이 유행하고 있었고, 조선 지식인들의 철학적·이념적 반성은 그러한 양명학의 영향과 무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명학은 강렬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조선유학은 양명학을 배제하고 이기심성론 논의에 주력하면서 독특한 학문적 기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한 논의 과정의 중심에는 양명학 비판에 결정적 역할을 한 퇴계가 있었다. 퇴계는 양명학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는 대신에, 양명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양명학의 주자학 비판에 적극 대응하며 주자학을 보완하는 길을 택하였다. 퇴계의 理發說, 理自到說 등은 바로 양명학의 주자학 비판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였다. 퇴계는 양명의 知行合一說이 形氣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義理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유학에서 지향하는 것은 義理에 관해서도 形氣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자발적으로 도덕적 감정·판단·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맹자가 도덕감정의 자연 발현의 예로 제시했던 孺子入井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퇴계는 도덕감정·판단·행위의 자발성을 理의 '역할(發 또는 自到)'로 설명함으로써 양명의 비판을 주자학의 기반 위에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려 하였고, 이는 마음〔心〕 중심의 陽明 心學을 理 중심의 退溪 心學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조선 지식인들이 반대 혹은 찬성의 의견으로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선유학은 주자학을 보완하고 양명학을 넘어선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이처럼 퇴계가 양명학을 비판하며 주자학의 토대 위에서 그 문제의식을 포용해 냄으로써, 양명학이 조선에서 뿌리 내릴 여지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理氣心性論의 심화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 유학이 성립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퇴계는 도덕감정·판단·행위의 자발성을 理의 '역할(發 또는 自到)'로 설명함으로써 양명의 비판을 주자학의 기반 위에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려 하였고, 이는 마음〔心〕 중심의 陽明 心學을 理 중심의 退溪 心學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는 주장은 과감하지만 무리가 있는 주장처럼 보인다. 퇴계의 이도설이 양명학의 주자학 비판에 대한 능동적 수용과 극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해임의 「최명길(崔鳴吉)과 조익(趙翼)의 경전 해석 경향과 그 의의: 『사문록』, 「맹자기의(孟子記疑)」를 중심으로」은 다음의 질문에 착안한다. '17세기 조선 양명학의 거두는 조익인가? 아니면 최명길인가?'

이해임은 이렇게 말한다. “17세기 노론의 집권으로, 조선 경학은 주자학 심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17세기 조선에서는 그 누구도 주자학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었다. 『사문록』이 문중 필사본으로만 전해졌다는 사실이 바로 그 정황 증거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문록』의 비전(秘傳)은 조선 경학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 근거 자료가 바로 『사문록』, 「맹자기의」이다. 이는 최명길과 조익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사람은 각각 양명학과 주자학의 입장에서 『맹자』를 이해한다. 「맹자기의」의 문답에 의거해보면, 최명길은 양명학과 견해를 같이 한다. 이에 반해 조익은 주자학의 관점에 서있다. 그리고 최명길은 50세를 전후해서 왕양명과 다소 다른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 같은 점에 의거해보면, 근래 논란이 되었던 ‘17세기 조선 양명학의 거두는 조익인가? 아니면 최명길인가?’라는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전수연, 김민재, 김용재의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4): 박세채의 「왕양명학변」을 중심으로」, 김희영, 김민재, 김용재의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3)」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공동연구 과제의 성과물들이다.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라는 주제로 매년 꾸준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먼저, 박세채의 양명학 비판을 다룬 논문에서 박세채가 왜 양명학을 반대했는지 언급한다. “이황의 양명학 비판 이후로 줄곧 ‘선학(禪學)’으로 치부되었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 박세채는 육왕학이 유행한 이후로 명나라의 유풍(儒風)이 일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조선도 명나라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했다. 이 같은 이유로 박세채의 학문성

향은 도통을 중시하는 벽이단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이어서 박새채 양명학 비판의 의의를 이렇게 정리한다. “박세채의 양명학 비판도 비록 이황의 변척과 마찬가지로 ‘양명학은 선학이다.’라는 관점으로 귀결되지만, ① 치양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점, ② 왕수인 만년 시기의 저술을 비판의 대상으로 선정한 점, ③ 양명학에 대한 비판을 왕수인의 문집까지 탐독한 후 도출하였다는 점 등에서 차별성을 확보한다.”

두 번째 논문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양명학 비판 유학자들을 다룬다. “17-18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서하 이민서, 만정당 서종태, 약헌 송징은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세 사람은 유사한 시기를 살았고, 서인계이면서, 관료로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이민서는 ‘치양지’와 ‘만물일체’로 양명학을 이해하였고, ‘자사(自私)’와 ‘호리(好異)’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양명학을 바라보았으며, 양명학은 공부를 부정하는 까닭에 성인의 학문을 완성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서종태는 양명학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오롯이 주자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송징은은 왕수인의 ‘격물치지’와 ‘지행합일’에 대해 전적으로 주자학적 입장에서 비판하였으며, 이런 주장의 기저에는 ‘양지’와 ‘이치〔理〕’ 개념을 이해하는 두 사람의 좁힐 수 없는 견해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로 17-18세기 초반의 조선 학계에서 이루어진 양명학 비판의 경향을 완전히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시기에는 주왕(朱王) 간의 경전 이해 방식의 차이나 치양지·지행합일·만물일체 등과 같은 양명학의 주요한 개념들이 어느 정도 학계에 공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명학을 수용하거나 하나의 사상으로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민서와 같이 왕수인

의 학문적 지향과 재주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 인물도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명학 연구의 어려움 중 한 가지는 이른바 양주음왕(陽朱陰王)이라고 지칭되는 유학자들을 발굴하는 작업이다. 자칫하면 과욕이 지나쳐 허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지만 한국 양명학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히 준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황인옥의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 『중용』 수장을 중심으로」는 전술한 양명학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황인옥의 평가는 이렇다. "서계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진 개방적 학문관을 소유한 학자이다. 그는 양명학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한 초기에 살면서 최명길 등 양명학자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유하였고, 양명학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계의 『중용』 주석에서는 양명학적 양상이 나타난다. 서계의 양명학적 「중용」 주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주자학적 풍토에서 양명학을 수용하여 경전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후의 사상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둘째, 보편적이며 원리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 주체를 강조 하였고, 인간의 마음을 심명(心明)으로 인식하여 인간을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였다. 셋째, 인성과 물성을 구분하여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가치체계를 구분하였고, 어려운 경전 속에서 인간이 실천할 점을 찾아내어 실천력을 강조하였다. 그의 『중용』「주석에서 양명학적 견해를 살펴보는 일은 초기 양명학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기의 실학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정심은 박은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은식 전공자이다. 박정심

은 박은식을 양명학자로 규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박은식이 양명학을 통해 고난에 빠진 조선을 구제하고자 했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그를 정인보처럼 양명학자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본 「근대 동아시아유학 맥락에서 박은식의 대동사상 읽기」 논문도 양명심학을 중심에 둔 글은 아니다. 다만 주자학의 권위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민족을 각성시킬 수 있는 사상을 찾고 있던 박은식에게서 양명학은 주자학을 대체할 수 있는 전통사상으로 평가받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박은식의 대동사상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서구적 근대는 동아시아에서 중화주의 해체와 유럽중심주의적 문명, 그리고 동양주의의 폭력으로 변주되었다. 근대 유학은 이러한 근대적 파고 한 가운데 있었다. 근대 국가적 맥락에서 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할 것인가가 동아시아근대 유학의 핵심 문제였다. 박은식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인 良知에 기초한 근대사회를 지향하였다. 그는 구습에 젖은 양반보다는 양지의 본연함을 본유하고 있는 무문자나 민중을 한국 근대사회의 주체로 내세웠다. 평등시대의 민중은 팽창적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 전제주의와 침략적 제국주의의 폭압을 제거하는 대동사회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치양지에 기반한 한국의 독립은 세계평화와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은 중화주의가 해체된 자리에 동양주의를 자리매김하였다. 일본맹주론이기도 했던 동양주의는 동문론을 내세워 유학적 외피를 입었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제국주의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념이었다는 차원에서 반유학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유위는 중화주의 해체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남녀신분 가족 국가 인종 등 차별과 억

압을 야기하는 모든 것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석처럼 중화주의적 천하관을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이념을 묵수하는 것은, 그것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대적 격변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박은식은 한국민족의 당면 과제를 강권의 제국주의를 이겨내고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국주의 침략 한 가운데서 제국주의 침략을 넘어서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면서도, 민족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박은식 사상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3) 기타(1편)

| 번호 | 저자명 | 논문 제목 | 발행기관명 | 학술지명 |
|---|---|---|---|---|
| 1 | 김세정 | 조선시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조선시대 양명학 일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유학연구 |

김세정의 「조선시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조선시대 양명학 일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정리해 둔 자료를 활용한 논문이다. 김세정은 이미 수차에 걸쳐 이를 발표되었다. 김세정이 제시하는 양명학 연구의 과제는 들어볼 가치가 있다. "첫 번째로 총론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양명학 전반을 조망하는 연구 작업에 각론에 해당하는 개별 양명학자에 대한 연구 성과 및 시기별.분야별 연구 성과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 양명학 전반을 다룬 연구 성과물이 대체로 철학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바, 문학과 사학과 철학 분야에서의 균형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다.

셋째, 조선시대 양명학 연구는 오늘날의 시대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수립하는 과제는 한국 양명학 연구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사명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자학과 양명학이라는 두 진영 사이에 정제두를 위치시키고 양명학자이라는 측면과 주자학자라는 측면을 절묘하게 배합하여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제두가 양명학을 추숭했지만 양명학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자학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식이다. 이런 연구 경향은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즐겨 취하는 전략이다.

한편 중국에서 양명학(양명후학)을 연구하고 귀국한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중국 양명후학의 전개 양상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양명후학과 비교를 통해 정제두 양명학의 특성 또는 독자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박현정은 기존의 연구 경향을 양명우파적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양명좌파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나눈다. 양명우파적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국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장의 주요 근거는 김교빈의 범리-생리-진리의 구분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진리 개념을 중심으로 정제두의 개념 운용이 나 이론적 특징을 비교적 추수익, 섭표 등을 포함하여 유종주와 황종희 등 양명우파를 계승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양지를 체용일원의 이해에 있어서도 일원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가치론적으로 본체를 중심으로 한 체용일원의 이해 양상을 보인다고 본다." 양명좌파적 입장에 대해서는, "하곡학을 양명좌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개념적 근접성으로는 나여방

을, 이론적 근접성으로는 왕기를 꼽는다. 정제두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가 나여방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몇몇의 연구가 있었고, 이론적 분석으로는 정제두는 현성파의 일원론적 체용일원 이해를 가지고 현성양지와 심체의 무선무악을 긍정했으며 공부법상에서도 집착제거의 공부방법을 주로 하여 왕기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박현정은 정제두의 양명학이 양명좌파적이라는 논지를 전개한다. "본문은 체용에 대한 관점, 현성양지와 심체의 무선무악에 대한 긍정 여부, 그리고 공부론에 대한 입장의 세 가지 기준으로 하곡학을 학파적 시각으로 조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상술한 점에서 정제두의 양명학 이해의 경향이 전반적으로 우파보다는 좌파에 근접한 것 같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박현정 연구의 약점은 추동곽, 구양덕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정통파(중도파)와 좌파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추동곽, 구양덕 등은 이른바 우파인 섭표, 나염암의 양지론을 비판하면서도 현성양지로 대표되는 왕기 같은 좌파를 비판했다는 점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들이 해명되어야 양명후학과 정제두 양지학을 비교하는 연구가 엄밀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현정이 양명좌파적이라고 말하는 양지의 현성을 긍정하는 체용일원에서 두고 말하면 정통파나 좌파나 동일하게 우파를 반대했지만 정통파는 自然爲宗의 좌파적 입론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따지는 작업은 중국 양명학과의 동이를 따지는 작업을 필히 거치게 된다.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수립하는 과제 중 중요하게 부각되는 화두가 바로 정제두가 임정종욕 네 글자를 양명학의 폐단으로 지적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다. 주자학적 입장에서 정제두를 이해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료이고, 양명학적 입장에서 정제두를 이해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창광방자의 폐단을 극복한 정제두 식의 양명학 수립이 요청된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이 물리(物理), 생리(生理), 진리(眞理)이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물리는 주자학, 생리는 양명학, 진리는 하곡학이다.

서강휘는 생리와 진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가령 생리의 도식을 차용해서, "양명 정통파의 대표적 인물들인 鄒守益(1491-1562, 號는 東廓), 歐陽德(1496-1554, 號는 南野), 陳九川(1494-1562,號는 明水)은 당시 왕용계와의 교류를 통해 공부에 있어서 본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공부를 통해 본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인물들인데 이를 통해 귀적계열이나 태주학의 문제를 지적한다. 귀적계열은 본체를 실체로 오인하여 공부의 생동성을 방기했다. 하곡의 입장에서 보자면 귀적 계열은 진리의 본체적 성격에 집중하여 생리와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진리의 도식을 차용해서, "태주학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여 공부의 중요성을 외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하곡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리만을 강조하여 진리의 본체성을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곡에게서의 생리는 진리와 단절될 수 없는 것이며 진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진리는 생리를 통해 활동성을 보장받는다."

서강휘의 주장은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조합점을 찾아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먼저 하나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바로 생리 위에 진리가 있다는 프레임 말이다.

본 프레임을 보편화 시킨 김교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생리에 대한 말이다. “하곡은 주자가 내 밖의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다고 한 논리를 부정하면서도, 또 마음속에서 이치를 구할 때에 정욕에 의해 잘못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명학의 폐단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놓고 볼 때 우선 하곡이 말하는 ‘이’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필자가 가장 주의를 기울인 문구는 다음의 말이다. “모든 ‘이’(凡理) 가운데 생리(生理)를 주로 삼고 생리 가운데 진리를 택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이다.”(김교빈,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1995년, 27-28쪽); “하곡은 물리(物理)를 기본으로 삼는 주자학을 반대하여 물리보다 상위 개념인 생리(生理)를 말한 것이며, 다시 양명의 사상에 ‘정에 맡겨서 욕심을 좇을〔任情從欲〕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속에서 진리를 구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와 양명의 문제점을 자신의 철학체계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한 노력인 셈이다.”(김교빈, 104쪽); “결론적으로 심이 생리에 해당하고 성이 그 속에 담긴 진리라는 추론도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김교빈, 123쪽)” 진리에 대한 말이다. “생리는 선과 악이 같이 섞여 있는 존재이고 진리는 선만 있는 존재이며, 생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면 완전한 본래의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이제까지의 서술에서 생리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생리 가운데 들어 있는 참된 모습이 바로 진리임을 밝혔다. 그리고 진리는 생리의 체에 해당함을 알았다. ……하곡이 말하는 생리 가운데 선한 부분인 진리가 바로 내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명덕(明德)이며, 밖의 사물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명덕 속에 담겨 있는 성스러운 앎, 즉 양지(良知)를 잘 닦아 진

리에 이르는 것일 뿐이며…"(김교빈, 42-45쪽)

김교빈의 논리는 매력적이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가령 김윤경은 '정제두가 리를 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본지가 리를 구분하여 진체(眞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주자학의 성정 관계에서는 주재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제두의 체용관념과는 다르다. 또 진리와 생리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며, 진리의 개념에서 기(氣)가 제외된 것도 아니다.'(《16-17세기 한국 양명학 성립과정의 공부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생리와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생리 위에 진리가 있다는 김교빈 식의 프레임이 맞는지 틀린지는 정제두의 발언을 직접 검토해봐야 확정할 수 있는 문제다.

먼저 생리를 검토해보자. 생리를 창광방자와 연결하고 다시 그 위에 진리를 설정하는 방식은 생리를 진리에 비해 하위 층차로 설정하고 인간의 욕구와 관련되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과연 그러한가? 생리를 설명하는 생신명근(生身命根, 몸을 낳아준 생명의 근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생신명근은 성체의 형질〔性之質〕과 성체의 덕성〔性之德〕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정신과 생기가 결합하여 생명체를 이루는데 이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생리(生理)이다. 생명체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는 이 두 영역을 모두 관장하게 되며 이 생리가 각 개체에 구체화 되는 원리가 생신명근(生身命根)이다. 인간은 누구나 '생신명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유지한다면 생물학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생리는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생명의 이치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진리를 검토해보자. 다음 내용(生理之中, 擇其眞理, 是乃可以爲理矣.)은 생리 위에 진리를 상정하는 근거로 삼는 가장 대표적인 논거다. 서강휘 역시 이 문장을 가져와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과연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다행히 『하곡집』에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문장이 나온다.

> "生理之體, 本謂此爾° 雖然又其一箇活潑生理全體生生者, 卽必有眞實之理, 〔體°〕 無極之極, 而於穆′ 沖漠′ 至純′ 至一之體焉者, 是乃其爲理之眞體也°〔是乃所謂道者也命者也°〕人心之神, 一箇活體生理, 全體惻怛者, 是必有其眞誠惻怛′ 純粹至善, 而至微′ 至靜′ 至一之體焉者, 是乃其爲性之本體也°〔就其中本體有如是者, 自然本如是° 是正所謂性者也道者也, 聖人惟是而已°〕" (『하곡집』 권9, 「존언」(중))

본 인용문에서 생리지체(生理之體)에서 진실지리(眞實之理)가 있고, 이것이 리지진체(理之眞體)이고, 인심지신(人心之神)에서 진성측달(眞誠惻怛)이 있고, 이것이 성지본체(性之本體)라는 이 두 문장은 진리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중요한 논거인 생리지중(生理之中) 택기진리(擇其眞理) 시내가이위리이(是乃可以爲理矣)와 구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장은 생리지체와 리지진체, 인심지신과 성지본체를 별개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리지중(生理之中) 택기진리(擇其眞理)'의 문장도 생리 위에 별도로 존재하는 진리가 있다고 굳이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생리 위에 진리를 설정한 본 프레임의 유용성과 차용 의도는 십분 이해가 가지만 역시 矯枉之過의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4. 평가와 전망

한국양명학 논문 편수는 14년도 8편, 15년도에 12편, 16년도 15편, 17년도 16편, 18년도는 19편, 19년도 18편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도 13편으로 줄었다. 하강 추세가 내년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비단 한국 양명학 논문만이 아니라 중국 명청대 논문 편수도 줄었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조선유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명학(하곡학파)의 비중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2020년도에 전체 편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른바 문제작은 보이지 않는다.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향후 조선 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헌의 제약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